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841
----------	-------

제안연월일 : 2022. 2. 28.

발 의 자 : 조태용 · 구자근 · 김기현
김미애 · 김영식 · 김예지
김정재 · 김태호 · 김희곤
박성민 · 박성중 · 박진
송언석 · 윤주경 · 이양수
이주환 · 이철규 · 정경희
정진석 · 주호영 · 지성호
추경호 · 태영호 · 허은아
의원(24인)

주 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에 지지를 보

내며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맞서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민스크 협정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번 사태는 평화는 결코 말이나 문서로 지킬 수 없으며, 힘이 뒷받침될 때에만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재 동참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으며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규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침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철수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헌장과 민스크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군이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는 일체의 무력 행동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로

부터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이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불굴의 용기로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투쟁을 폄하하는 모든 언동에 반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등 경제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 발생 등 시급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정세 혼란을 틈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에 대비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불굴의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를 러시아식 키예프(Kiev)가 아닌 우크라이나식 키이브(Kyiv)로 표기할 것을 결의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철수를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민스크 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해야 함.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불굴의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강한 연대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한민국 정

부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